

중기 ODA 확대 계획

2008. 8. 14

기획재정부 · 외교통상부

목 차

I. 외교통상부 의견	1
1. 검토 배경	1
(1) ODA 확대 필요성	1
(2) 중기 ODA 확대계획 수립 필요성	2
2. 중기 ODA 확대 추진 방향	3
(1) ODA/GNI 비율을 2015년 0.25%로 확대 검토 ...	3
(2) 확대 검토시 고려사항	4
(3) 향후계획	4
II. 기획재정부 의견	5
1. DAC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원조규모 비교	5
2. '15년 ODA/GNI 0.25% 확대계획안 검토	6
3. 종합 결론	7

1. 검토 배경

(1) ODA 확대 필요성

가. 우리 정부의 '기여외교 확대' 국정과제 이행

- '성숙한 세계국가' 국정지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로 '기여외교를 위한 **ODA 확대**' 선정(08.3월)
-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 필요

나. 우리 경제규모와 국제적 지위에 상응한 **ODA** 규모 필요

- 우리나라가 대표적 개발경험 모델국가이자 세계 13위 경제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원국 및 국제개발기구의 기대와 요청이 급격히 증가
- '07년도 우리 ODA/GNI 비율(**0.07%**)은 **OECD DAC**평균(**0.28%**)의 **1/4**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 대북지원을 포함할 경우, ODA/GNI비율은 0.13%로 상승
- ※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OECD는 향후 ODA 통계발표시 우리의 대북 지원규모를 각주로 병기기로 함

다. 국제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확대

- 원조확대를 통해 국제원조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위기 대응, 인권, 무역 등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
- UN, OECD, G8정상회의에서 개발 원조(ODA)는 핵심요소

라. ODA는 정상외교, 에너지 협력외교 및 국제협력에 중요한 역할

-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및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 지역 등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 관련 ODA의 역할 급증

※ 대통령께서는 지난 G8확대정상회의(7.9)에서 '동아시아지역 기후 파트너십'을 위한 2억달러 규모의 협력사업 추진 발표

(2) 중기 ODA 확대계획 수립 필요성

가. UN과 OECD는 대외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다년도 ODA 계획 제출을 촉구

- 특히, 유엔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연도인 2015년 ODA 확대목표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로 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요청

【'07 및 '08년 OECD에 제출한 우리 정부의 ODA 확대계획(안)】

	2008	2009	2010	2011	2012	-	2015*
ODA/GNI(%)	0.108	0.114	0.121	0.128	0.15	-	0.25

* 2015년 ODA/GNI 0.25%목표는 '06년 발표된 비전 2030에 포함

나. OECD DAC는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공여국이 제시한 다년도 ODA계획을 근거로 향후 ODA확대 추이를 전망하는 한편, 수원국과의 원조정책대화시 개발사업계획 수립

- 우리나라는 '95년부터 매년 DAC에 원조통계 및 확대 계획을 통보

2. 중기 ODA 확대 추진 방향

(1) ODA/GNI 비율을 2015년 0.25%로 확대 검토

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의 정책 방향을 퇴색치 않기 위해 ODA 확대계획은 최소한 지난 정부의 대외적 발표내용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수립

※ **OECD 개발협력보고서('07년)**: “Korea remains firmly committed to increasing its ODA to USD 1 billion by 2009 and furthering its efforts to reach 0.25% of GNI by 2015”

나. 다만, 금년도 경제상황을 감안, '09년도는 소폭(7~11%) 증액 하되, 향후 국제사회의 공약인 **2012년 0.15%, 2015년 0.25%** 달성을 위한 단계적 확대목표 수립, 이행

○ 대부분의 OECD공여국은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연도인 2015년 ODA목표를 **0.7%**로 천명하고 있음을 참고

【우리정부의 연도별 ODA 증액 방안】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안	ODA/GNI(%)	0.108	0.110	0.120	0.133	0.150	0.175	0.208	0.25
	전년대비 증액율(%)	-	7	15	16	18	23	25	26
2안	ODA/GNI(%)	0.108	0.112	0.122	0.135	0.15	0.175	0.208	0.25
	전년대비 증액율(%)	-	9	14	16	17	23	25	26
3안	ODA/GNI(%)	0.108	0.114	0.123	0.135	0.15	0.175	0.208	0.25
	전년대비 증액율(%)	-	11	13	15	17	23	25	26

(2) 확대 검토시 고려사항

- ODA계획에 포함된 자원 중 정부예산 지출은 **70%** 수준인바, 재정에 대한 실제 부담이 적다는 측면도 고려하여 확대계획 수립
 - 유상원조(EDCF) 재원조달은 정부출연, 차관원리금 회수 등으로 구성(실제 정부예산 출연은 매년 EDCF계획의 50~60% 수준) 되어 있어 실제 재정 부담은 계획에 비해 경감
 -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대부분 출자.출연은 별도 자원 활용

(3) 향후 계획

- 중기 ODA 확대계획 결정(8월 중순)
- '09년도 ODA 예산 확정(9월초)
- 유엔 MDG 고위급회의(9.25) 및 도하개발재원회의(11.29-12.2)
 - 중기 **ODA 확대계획**에 관한 우리 정부입장 대외적 천명

1. DAC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원조규모 비교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원조여건 차이를 고려할 때, 현행 원조 규모가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 과소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북지원 포함시 우리 ODA 규모는 2배 수준*으로 절대규모 (123억불)는 DAC 회원국인 아일랜드(11.9억불) · 핀란드(9.7억불)보다 크고, ODA/GNI(0.13%)는 일본(0.17%) · 미국(0.16%) · 그리스(0.16%)에 근접

* 대북지원 포함시 '07년 ODA 규모 및 OECD내 순위 변화

ODA 규모 : (ODA) 6.7억불(19위) → (ODA+대북지원) 12.3억불(17위)

ODA/GNI : (ODA) 0.07%(27위) → (ODA+대북지원) 0.13%(24위)

- DAC도 우리의 대북지원규모를 개발협력보고서 등에 기술할 예정

- 우리의 1인당 GNI는 세계 51위('06년)*, 국내 사회안전망 지출 비중도 OECD 국가중 최하위(29위)** 수준인 실정에서 해외 빈곤층 원조를 급격히 확대하기는 곤란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World Bank, '08.4)

** 한국 5.7%, OECD 평균 20.7% (OECD Factbook 2008, '08.4)

- 선진국 원조는 舊식민지 배상 및 영향력 유지(佛·英), 전후 배상(日·獨)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어 우리와 역사적 배경 상이

- 또한, 선진국 원조는 '60년대 이전부터 수십년에 걸쳐 확대되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순수공여국으로 전환된지 8년에 불과

2. '15년 ODA/GNI 0.25% 확대계획안 검토

◇ '15년 ODA/GNI 0.25%를 추진하기에는 재정부담 과중

□ 외교부안에 따를 경우, 원조규모는 '07년 대비 '12년 3배, '15년 6배 수준이며,

○ '08~'15년간 연평균 21% 증대, '12~'15년간에는 매년 5천~8천억원 추가증액이 필요(명목성장을 7% 가정)

□ 『 vision 2030 』 : 엄밀한 재원조달계획 등에 근거하기 보다는 당시의 경제여건 하에서 대략적 장기전망에 따라 장기적 비전과 도전적 목표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작성

○ '08년 현재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 vision 2030 』 | 목표치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

○ 모든 국민이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원조 확대에 따른 국민적 비판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지난 5년간('02~'07) 우리 ODA 증가속도(연평균 19.2%)가 DAC 회원국 ODA 증가율(연평균 12.2%) 및 우리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7.0%)을 훨씬 상회했으며,

○ '08년도에도 전년대비 53% 증가할 계획임도 고려할 필요

외교부의 ODA 확대안(1안 기준) 검토 (명목경제성장을 7% 가정)

	'07	'08	'09	'10	'11	'12	'13	'14	'15
ODA/GNI(%)	0.069	0.108	0.110	0.120	0.133	0.150	0.175	0.208	0.250
ODA 총지출(천억원)	6.6	10.1	11.0	12.8	15.2	18.4	22.9	29.2	37.5
전년비 증가(천억원)	-	3.5	0.9	1.8	2.4	3.1	4.6	6.2	8.3
연평균 증가율		('08~'12) 16%, ('12~'15) 27%, ('08~'15) 21%							

3. 종합 결론

□ ODA는 경제성장을 수준으로 확대하되, 경제여건 호전시 일부 추가증액을 검토함이 적절

○ 명목경제성장을 7%를 가정시, 경제성장을 수준으로만 확대해도 원조규모가 '07년 대비 '12년 2배, '15년 2.5배에 이름

경제성장을 수준의 ODA 확대안 (명목경제성장을 7% 가정)

	'07	'08	'09	'10	'11	'12	'13	'14	'15
ODA 총지출(천억원)	6.6	10.1	10.8	11.5	12.3	13.2	14.1	15.1	16.2
전년비 증가(천억원)	-	3.5	0.7	0.7	0.8	0.9	0.9	1.0	1.1

□ ODA 확대를 위한 정부예산 순증은 곤란하므로,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기타 대외관련예산 조정이 필요

□ 국제사회에는

① DAC 기준상 ODA로 계상가능한 대북지원을 포함할 경우 우리 ODA 규모가 작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고,

* 단,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ODA 공식통계에는 제외하고 주석으로 표시('08.6 기통보)

② 필요시 ODA/GNI 비율 대신 원조규모 기준으로 확대계획을 발표(예: '15년까지 원조규모를 '07년대비 배증)하는 방안 검토